

'익산형 난임치료' 전국 확대

215명 참여·33.9% 성공률... 지자체 잇단 벤치마킹 출산 장려 분위기 확대·인구늘리기 대표정책 육성

익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익산형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익산형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익산시의 인구늘리기 대표정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한방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21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73명이 임신해 33.9%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도 30명이 참여 신청을 했으며 익산시는 5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인당 18만원씩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으로 부부 모두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선정된 대상자들은 오는 6월까지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한방진료에 참여하게 된다.

한방난임 치료는 한방 병·의원이 참여해 개인의 체질에 맞춤 한방치료로 고통이나 후유증이 없으며 자연임신을 유도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여성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향후 양방 난임 시술 시 성공확률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익산시는 한방 난임 치료와 연계해 지난해부터 도내 최초로 산후건강관리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20만원씩 산후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해 761명에게 지원됐다. 사업에 대한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는 전북도 사업으로 확대돼 지원 규모를 더욱 늘릴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올해 도비를 포함해 총 1억 9천6백만원을 투입해 980명의 산모에게 산후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같이 7년여간 이어진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좋은 성과 덕분에 전국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익산시는 하반기에 실시될 설문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만족도를 평가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보완해 사업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원광대 박맹수 총장, 희망 릴레이 동참

"세계의 빛·인류의 희망·힘내자 대한민국" 손글씨로 전해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릴레이 릴레이에 동참해 메시지를 전했다.(사진)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지목형 캠페인이다.

전북대 김동원 총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박맹수 총장은 "세계의 빛 대한민국, 인류의 희망 대한민국, 힘내자 대한민국, 원광대학교가 함께합니다"를 손글씨 메시지로 전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길 염원했다.

한편, 박맹수 총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원광보건대 백준을 총장과 원광대학교병원 윤권하 원장을 지명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행복 콜버스' 오산면 운행개시

여산면에 이어... 내달 6일부터

익산시가 시골 농촌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특별한 대중교통 서비스인 '행복콜버스'가 5월 6일부터 오산면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지난해 여산면에 처음 도입한 '익산 행복콜버스'는 올해 1분기 이용 건수가 3,800여건에 달할 만큼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이에 따라 오산면에도 행복콜버스 운영을 시작하며 오산면 7개 리 49개 마을 주민들이 1회당 3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운행 형태는 정규 노선제와 수시 콜방식을 병행하여 운행한다. (노선제 07:00~09:00, 16:00~18:00 / 콜제 09:00~16:00)

행복 콜버스는 각 마을에서 오산면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므로 행정업무를 보거나

터미널에서 하차 후 다른 노선으로 환승도 가능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편익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콜제 형태로 이용할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하나 교통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하므로 언제든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연락처 ☎ 063-853-5325, 신홍여객)

정현을 시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행복콜버스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아주 편리한 제도이므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고령화와 가족해체 등 고위험 독거노인가구 91가구를 선정하여 '똑똑똑 희망 두드림' 사업을 실시한다.

'똑똑똑 희망 두드림'으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군산 나운2동 인적 안전망 구축

군산시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양성관·고석권)는 고령화와 가족해체 등 고위험 독거노인가구 91가구를 선정하여 '똑똑똑 희망 두드림'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똑똑똑 희망 두드림사업'은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자살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위기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배달원이 주 3회(월,수,금) 건강요리를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김재훈 기자

한편 나운2동에서는 50세~64세 중, 복지 돌봄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등)를 받지 않는 건강 취약계층 100명을 선정하여 매달 1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건강상담 및 서비스 욕구 파악하여 연계하며 중·장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양성관 위원장은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과 함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계속 찾아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청년 시정 참여 늘린다

익산시, 포인트 제도 추진... 연 최대 20만원 익산지역화폐 지급

익산시는 지역 청년의 시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익산 청년 참여 포인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익산 청년 참여 포인트 제도는 시정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포인트를 지급, 포인트 누적액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1포인트=1원)하여 익산지역화폐(다이로움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익산시 주관 교육·행사 참여, 봉사 활동 참여, 시정 홍보 등 시정 참여 항목에 따라 1,000~1만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누적 포인트가 2만포인트 이상 시 익산지역화폐(다이로움카드)로 지급되며, 1인당 연 최대 20만원 까지 지급 가능하다. 포인트 신청은 익산청년센터 청소년 홈페이지(youthfor est.iksan.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참여신청서 제출시 자동으로 신규가입포인트(10,000포인트)가 지급되고, 시정 참여 후 적립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게시하면 관리자 승인 후 항목별 포인트가 적립된다.

청년 참여포인트제도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청년센터 청소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익산청년센터 청소년(☎859-7384,73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용 일자리정책과장은 "청년 참여 포인트 제도가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활동 확산에 기여하고 익산지역화폐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정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들의 취업, 문화, 소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청년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는대로, 청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년문화학교, 청년 창업페스티벌, 청년거리문화제 등 청년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공익직불제 5월부터 신청

군산시는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논이모작, 친환경, 경관보전)로 새롭게 개편되어 5월부터 신청 받는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은 공익직불을 위해 농업·농촌환경보전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의무를 지게된다. 특히, 직불제가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이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에는 역직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했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5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 신청 후 이행점검·대량검증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직불금 지급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반려동물 펫티켓 홍보

군산시는 봄철 반려견을 동반한 행락객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인의 펫티켓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있고, 반려인·비반려인의 갈등과 마찰 예방을 위한 펫티켓 준수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견주와 반려견이 주로 산책하는 공원 등산로, 유원지 및 인구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배설물 수거 및 반려견 안전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